

# “보이스피싱 막아라”... 통신3사, AI 탐지·분석으로 대응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 5878건, 피해금액 3116억 달해

SKT, AI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 개발  
KT, 서울경찰청과 실질적 피해 차단  
LG U+, 악성앱 포착해 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예방과 방지를 위해 통신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 수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5878건, 피해 금액은 3116억원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범죄 건수는 17%, 피해 금액은 2.2배 증가한 수치다.

통신업계는 보이스피싱이 주로 전화로 이뤄지는 범죄인 만큼,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등 2개사는 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보이스피싱



KT, LG유플러스가 은행연합회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LG유플러스 이재원 부사장(오른쪽),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가운데), KT 이현석 부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피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 공동 홍보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현석 KT 부사장은 “은행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과 금융권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중망이 구축됐다”며 “KT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후후 앱’ 등 AI 기반 탐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통신업계의 보이스피싱 대응은 단순한 범죄자 번호 차단을 넘어 예방 시스템 구축, 답보이스 기술 개발 등 사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신 3사는 각자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의 AI 분석 정보를 은행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연계해 고도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은 AI 사이버보안 기

술 ‘스캠밴가드(ScamVanguard)’를 활용해 통신 정보와 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국내 최초 AI 기반 이상탐지 통합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체·출금 차단 등의 선제적 대응에 활용된다. 스캠밴가드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스미싱, 스캠 등 다양한 전자금융 사기를 통합적으로 탐지·분석한다.

이종민 SK텔레콤 미래R&D 담당은 “AI로 보이스피싱 패턴을 정밀 분석해 금융 사기 위험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융합해 더욱 정교한 이상탐지 통합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과 경찰이 확보한 악성 앱 설치 URL 정보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에도 나섰다. 의심 번호와 통화한 고객이 해당 URL에 접속한 3667건의 사례를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 접촉해 실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건당 평균 피해액 약

410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0억원의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찰에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안 활동을 강화해 지난 3개월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는 2월부터 4월까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를 방문해 악성 앱 삭제 등 구제활동을 벌였다. 피해 예방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87억원에 달한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은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객 보호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협업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넥슨 ‘NDC’, 6년 만에 오프라인 재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실무자 중심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  
총 10개 분야 49개 강연 진행  
게임업계, 산업 전반 회복 기대

넥슨이 국내 최대 게임 지식 공유 행사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를 6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하며 게임 산업 내 실무 중심 교류와 지식 생태계 복원을 본격화한다.

넥슨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판교 사옥 및 인근 일대에서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NDC 25)’를 6년 만에 오프라인 공개 행사로 연다고 1일 밝혔다.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현장 기반 지식 교류를 다시 가동하며, 변화하는 게임 개발 환경 속에서 실무자 중심의 지식 공유 플랫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다.

NDC는 2007년 넥슨 사내 지식 나눔 행사로 시작해 2011년 외부에 공개된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 지식 컨퍼런스로 성장해왔다. 기획·프로그

래밍·비주얼아트·사운드·마케팅·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매년 이어졌으며, 게임업계 내부의 실질적인 성장 통찰을 공유하는 행사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단순한 성공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발표 문화는 NDC만의 차별점으로, 산업 내 실무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공개 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된 2019년까지는 연 평균 2만명 이상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2021년 온라인 전환 이후에도 누적 온·오프라인 참가객 수는 약 9만1100명에 달했다.

올해 ‘NDC 25’는 다시 공개 오프라인 방식으로 돌아오며, 총 10개 분야 49개 강연이 진행된다. 세션은 게임 기획, 기술, 디자인뿐 아니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생성형 AI 활용 사례 ▲게임 성과 예측 ▲대규모 서버 구조 설계 ▲

물리 기반 캐릭터 구현 등으로 구성된다. 실제 현업에서의 고민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강연들로, 현장성과 밀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넥슨의 주요 타이틀 관련 세션도 주목받는다. ‘메이플스토리’, ‘FC 온라인’, ‘프라시아 전기’ 등 자사 IP 중심의 콘텐츠 외에도 ‘몬스터 스트라이크’, ‘승리의 여신: 니케’, ‘쿠키런: 킹덤’ 등을 개발한 국내외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글로벌 현장 사례와 최신 노하우를 직접 전한다.

게임업계는 이번 ‘NDC 25’의 오프라인 복귀를 산업 전반의 회복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IP 확장 경쟁, 기술 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전방위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직군 간 경계를 넘어선 실무 지식 교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개발자, 기획자, 퍼블리셔 등 다양한 종사자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할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배민, 고객·업주·라이더에 앱 장애발생 보상

지난달 30일 오후 일부 기능 장애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발생한 앱 일부 기능 장애에 대해 고객과 업주, 라이더 등에게 신속한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업주에게는 장사에 차질을 빚은 점에 대한 보상으로 장애 발생 당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이뤄진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포장 서비스 입

점 업주 모두가 해당된다.

정액제 광고인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업주에게는 약관에 따라 장애로 인해 주문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광고비용의 10배 금액을 보상한다.

고객에게는 지난 31일 5000원 쿠폰 지급을 완료했다. 쿠폰 제공 대상은 해당 시간 음식 주문을 하려 했으나 메뉴를 고른 뒤 다음 단계인 장바구니 진입이 이뤄지지 않은 시스템 장애로 주문에 실패한 고객 약 32만6000여명이다.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라이더에게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보상이 이뤄진다. 배민은 해당 시간 배달과 관련한 기록이 있는 라이더 약 4만 5000명에게 각 1만원을 지급한다. 보상은 차기 배달 비용 정산에 자동으로 포함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금요일 저녁 시간, 주문 장애 발생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과 업주, 라이더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각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진행하고 앱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향후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KT-수자원공, 190억 규모 디지털전환 추진

‘K-워터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KT가 한국수자원공사와 ‘K-워터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9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물관리 기술의 첨단화를 목표로 한다. KT는 이노그리드, 에스티로직, KTDS가 참여한 ‘KT 컨소시엄’을 꾸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향후 2년간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 입찰과정에서 KT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기반 물관리 DX(디지털

전환) 역량 ▲데이터 플랫폼 설계의 안정성과 확장성 ▲물관리 특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 수립 전략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KT는 K-워터의 방대한 물관리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AI·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통합관리 허브 플랫폼 개발 ▲물 정보 관련 SaaS 시범 운영 등 디지털 플랫폼 전반을 설계·구축한다.

/김서현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 ‘주차 플랫폼 솔루션’ 수출

사우디아라비아와 ‘맞손’

카카오모빌리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디리야컴퍼니가 추진하는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디리야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도시 개발 계획인 ‘기가 프로젝트’ 중 하나다. 총 630억달러(약 86조원)를 투입해 사우디 왕조 발상지인 디리야 일대 14km<sup>2</sup> 부지에 최고급 리조트, 빌라, 병원,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디리야 내 주차장 인프라 운영 및 주차 예약·결제 관리 등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한다. 우선 현재 디리



사우디아라비아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에서 류권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왼쪽)와 제리 인체릴로 디리야컴퍼니 그룹 CEO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야 일부 구역에서 가오픈 상태로 운영 중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효용성이 검증되면 적용 대상지를 확대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에서도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는 기술 등 차별화된 운영 노하우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